

Highlights

하이라이트

대교협 제19대 서거석 회장 취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제19대 회장으로 서거석 전북대 총장이 취임했다. 대교협은 4월 8일(월) 14:00~16:00 대교협 대회의실(서울 가산동)에서 서거석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취임식에는 국회 교문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학용 위원장(민주통합당), 김세연 의원(새누리당), 정세균, 김윤덕 의원(민주통합당), 청와대 김재춘 교육비서관, 교육부 박백범 대학지원실장, 대학총장 및 유관단체 기관장 등이 참석하고, 함인석 전임회장의 이임식도 함께 진행했다.



서 회장은 “최근 학령인구 급감 현상과 대학 재정의 위기는 대학들의 존립 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고등교육의 변화와 발전방향을 재정립해야 하는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대학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은 학생들을 잘 가르쳐 사회에 공급하고, 수준 높은 연구를 통해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대교협은 설립 초기의 초심으로 돌아가 우리 대학의 어려움을 보살펴주고,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89차 이사회 개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13년 4월 23일(화)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 회의실에서 제 189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2013년 대입상담교사단 발대식 개최

대교협은 3월 30일(토) 오전 11시 동국대학교 본관 중강당에서 '2013년 대입상담센터 대입상담교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선발된 대입상담교사단, 시도교육청 대입담당장학사, 교육부와 대교협 대입상담센터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여하였다.



대교협 관계자는 “변화된 2014학년도 수능으로 인해 대입상담의 중요성이 커졌으며 이에 정확한 대입정보제공과 안내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 “특히 학생과 학부모들이 대입상담 전문가 교사로 구성된 상담센터(1600-1615)를 적극 활용하면 무료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기관평가인증 신청대학 워크숍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월 24일(수)~25일(목) 대구 인터불고 호텔과 4월 29일(월)~30일(화) The-K 서울호텔에서 각각 1박2일 동안 2013년도 대학기관평가인증 2차 신청대학 담당자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번 워크숍에는 2013년 대학기관평가인증 2차 신청대학 89개교의 교직원이 참석하였으며, 자체진단평가보고서 작성 사례발표, 보고서 작성방법, 대학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대교협 11대 사무총장 선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4월 23일(화) 제189차 이사회를 열고, 제11대 사무총장으로 이원근씨(55·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교육수석전문위원)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대교협 사무총장 공모에는 현직 대학교수 등 8명이 지원하였으며, 지난 12일(금) 개최한 '사무총장 지원자 전형 위원회'(위원장 박철 한국외대 총장, 대교협 부회장)를 통해 2명의 후보자가 이사회에 추천되었다.

대교협 이사회는 후보자 2명에 대해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직접 비밀투표방식으로 제11대 사무총장을 선출하였다.

대교협 사무총장은 교육부장관의 취임 승인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다.



지역대학육성 정책포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5월 23일(목)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충남대학교(정심화국제문화회관 대덕홀)에서 「지역대학,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42회 대학교육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서거석 대교협 회장은 “고등교육은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요한 과업으로, 지역대학이 어려워지면 지역의 발전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지원·확충을 통한 지역대학 육성' 주제 발표에서 안규운 교수(전남대 기획처장)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예산과 대학 선정방식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사이 증액된 고등교육 예산의 거의 전부는 등록금 부담 완화에 투입되고, 학생 교육프로그램에 투입된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법·제도 정비를 통한 지역대학 육성' 주제 발표에서 신문규 과장(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은 “정부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창의인재 양성과 활용을 통한 지역대학 육성' 주제발표에서 박성익 교수(경성대 상경대학장)는 “창의인재 양성과 지역활용 연계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가칭) 지역 미래인재 장학생 제도 실시, 지방자치단체 평가시 '지역대학 지원정도' 항목 추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확대 유도, 지역인재의 유출 정도와 연계된 정부의 '연대 기여금' 제도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원근 대교협 사무총장은 “현재 수도권 대학과 지역 대학 모두 산학협력력을 기반으로 지역과 대학이 공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지역인재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대교협이 이러한 대학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고 활발한 정책제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13년 제5회 CEO 특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5월 31일(금) 성균관대 다산경제관에서 서울경제신문, 서울경제TV와 공동으로 대학생을 위한 CEO 초청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21C 금융 트렌드, 건강과 행복 스마트 금융' 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김 회장은 “성과와 직위는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맡은 일을 즐기다 보면 어느 순간 주어지는 것이 성공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즐기십시오. 즐기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인생은 행복해질 것입니다”라며 특유의 입담과 유머를 통해 성공하기 위한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2013년도 제1차 대학윤리위원회 개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13년 6월 12일(수) 달개비에서 2013년도 제1차 대학윤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9대 윤리위원회 회장 및 부회장을 호선하였으며, 7, 8대 윤리위원회의 활동 보고 및 향후 제9대 윤리위원회의 활동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